

지역 메아리

백세총명 건강디딤 교실 대상자 모집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018상반기 한방 백세총명 건강디딤(관절관리)교실 대상자를 2월 2일까지 모집 중이다.

백세총명 건강디딤(관절관리)교실은 한방진료 및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절질환 완화 및 관절 구축예방, 근력강화로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총명한 백세를 이루고자 함이며 한방진료(기초검사, 침, 투약, 테이핑 등), 골다공증 검사, 건강기능식품, 단전호흡, 안마도인, 건강관 관절관리 및 기혈순환을 위한 운동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여성화관 요리교실 '호응'

김제시 여성화관(과장 심미란)에서 진행되는 '요리하는 남성! 남성 요리교실'이 초기부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는 남성요리교실은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정 증가로 남성의 가정내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가사분담 실천을 통한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2018년 김제시 여성화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접수 초기부터 많은 남성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조기에 모집정원 20명이 접수를 마쳐 현재 성황리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수강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에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으며, 직접 만든 요리를 서로 나누며 공감과 소통의 시간도 함께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적십자봉사회 재편

김제시 성덕면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013년에 신규 결성되어 올해로 6년차를 맞아 김영숙 회장(대식마을) 체제로 재편해 새롭게 출발한다.

그간 회원들은 김제시 전역에 걸쳐 적십자 구호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적십자봉사회는 적십자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량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도우며 보면 복지를 지향한다.

특히 지역 의이웃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단체는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해 신경 쓴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크다.

지난 23일 개최한 연시총회에서 김영숙 회장은 올해부터는 성덕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회로 거듭나자며 각을 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심포마리나항만 조성 건의

김제시, 해수부에 방안 고려 중... 해양레저산업 중심지 발돋움

김제시가 새만금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시의 유일한 항구였던 옛 심포항에 내수면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옛 심포항과 그 주변 지역에 해양레포츠 시설을 갖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김제시가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현재 착공 중인 새만금 남북도로, 동서2도로 등과 연계하여 심포마리나항을 교통의 최적지로 탈바꿈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한편 마리나항만은 스포츠·레크리에이션용 요트나 모터보트 등 선박을 위한 항구로서 항로·방파제 등의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다.

주로 바다를 접한 곳에 조성되는 일반적 마리나항만이 아닌 갯이나 호수, 저수지 등의 내수면에 조성되는 마리나항만은 호텔과 놀이시설 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일차적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내수면은 물살이 잔잔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안전성도 보장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 구성으로 새만금방조제-새만금수목원-봉화산 봉수대-심포마리나항-망해사와 연계된 토탈관광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관내 유일의 항구였던 심포항에 내수면 마리나항만의 최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 2019년 해양수산부 마리나기본계획에 심포 내수면 마리나항만 조성 기본계획의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소년 창의 메이커교실' 운영

완주군,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창의력·공작능력 향상

완주군이 '청소년 창의 메이커교실'을 연중 운영한다.

24일 완주군은 창업보육센터 무한상상실에서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공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청소년 창의 메이커교실을 이달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창의 메이커교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들의 진로체험 뿐만 아니라 4~6학년 초등학생, 중·고교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3D프린터 모델링, 로봇교실, 드론, 코딩, 유니폼 목공, 3D펜 활용, 오감탐색공작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5명이상 팀을 이루어 완주군 창업보육센터(290-2488)에 전화상담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1일 1프로그램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 미래의 꿈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무한상상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기념식

연구소 도약의지 밝혀

완주군 봉동읍에 자리잡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연구소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24일 완주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이하 KIST 전북분원)에서 개최된 '10주년 기념식'에 박성일 완주군수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역리더, 첨단소재 산업 관련 학술계, 기업체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KIST 전북분원은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10년간 대한민국의 탄소 및 복합소재 응용기술의 발전을 선도해오며 지역의 R&D허브로 뿌리내려왔다.

개원 이후, 그래핀 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세계 최초 휘어지는 메모리 소자 개발, 자동차합공기용 탄소 섬유 강도향상 기술개발, 그래핀을 활용한 금속박막 기술 개발 등 복합소재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흥재인 KIST 전북분원장은 "우리 분원은 미래성장동력인 복합소재분야 첨단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며 한국 복합소재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해왔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소재 기술연구소로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연구소로 거듭 날 것이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4차산업과 신산업이 강조되는 변혁의 시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은 완주군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며 "15만 자족도시 완주 건설의 비전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사업들이 조속히 실행되어가는 상황에 KIST 전북분원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완주군의 미래성장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며 상생을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건축과, 주택개량사업 본격 추진

김제시 건축과(과장 한일택)에서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총사업비 60억으로 100동 이상 지원될 예정으로,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용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건축 완료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으로, 용자대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이지만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고정 연 2%, 변동금리 중 사업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2월9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2월에서 3월경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일택 건축과장은 "노후하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적극적으로 개량하여 더욱 내실있는 농촌주거여건 개선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축행정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육묘업 등록제' 홍보 나서

완주군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육묘업 등록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육묘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채소·식량·화훼작물의 묘(모종)를 생산, 판매하려는 육묘업 종사자는 먼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재하우스 기준 면적을 확보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야 한다. 또한,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과정을 이수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02-880-4945)에 교육을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교육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특히 등록없이 육묘업에 종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육묘업 등록제는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등을 표시하는 묘 품질표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真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N GOWON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